

급변하는 곡물시장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김치영

■ 구매자 선택시대는 오는가

US NO. 3 (미국산 옥수수) → PRC CORN (중공산 옥수수) → Thai Maize (태국산 옥수수) → ? 로 이어지는 한국의 사료용 옥수수시장은 이제 아르헨티산 옥수수의 등장으로 인해 아르헨티산 옥수수시대가 도래할 것인지에 대해 자못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Sellers Market, 공급자독점시장으로 대표되던 세계옥수수시장이 불과 2~3년 사이에 태국, 중공,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의 출현으로 인해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옥수수에 관한 세계적으로 수출주도권을 쥐고 세계 옥수수시세를 좌지우지하던 미산 옥수수가 이들 국가들의 수출드라이브정책에 밀려, 재고가 누증되고 수출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급기야는 미국내 농업은행이 도산되고, 이농인구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옥수수 공급량은 시비량의 증가, 품종개량, 기계화 등의 생산성향상으로 인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해, 수요량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게다가 70년대 말 유행병처럼 번지던, 식량의 무기화, 식량안전보장론의 대두 등으로 수입국들은 자국내 식량안보를 최우선과제로 내걸고 자급도 향상 및 부존자원개발에 역점을 두어왔다. 뿐만 아니라 수입곡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일본,

대만 등은 일찍부터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등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간접적으로 이들 국가의 곡물생산을 지원하였고, 이는 미국의 옥수수 시장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와같은 일본 대만 등 수입국들의 수입전략은 중요하여 이들 국가들이 이제는 주요곡물수출국으로 부상하였고 일본의 곡물전략은 이제 중공 쪽으로도 눈을 돌려 금년에도 일본은 중공과 100만톤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1984년 이래 사료곡물다양화와 시장다변화시책을 전개한 이래 사료원료구매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사료용 곡류 뿐만 아니라 식물성 박류 및 강피류 등의 품목과 수출시장도 크게 바뀌어지고 있다.

■ 옥수수 사파전의 양상

한때 한국의 옥수수 입찰구매에서 독주해오던 태국산 옥수수시세가 점차 재고물량이 바닥을 보이면서 수출여력이 30~50만톤으로 줄어들고 수출가격도 이제는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앞으로 7월까지의 계절적으로 태국산 옥수수의 가격상승시점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공산 옥수수 역시 지난해의 가격경쟁력

을 되찾기 위해 계속 수출가격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하나 현재로서는 아르헨티나산 옥수수시세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미산 옥수수시세 역시 원유가격의 하락과 수출부진등으로 인해 수출가격이 크게 떨어져 과거 20불가까이 벌어져 있던 태국산 옥수수와 가격차이 불과 4~5불대로 좁혀지고 있다.

이때문에 최근의 옥수수시세는 미국, 태국, 중공, 아르헨티나등의 4 파전의양상을 보이고 있다. 3월25일 현재 미산 옥수수시세가 C&F 가격기준으로 톤당 115불, 중공산 109, 태국산 111, 아르헨티나산 108불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산 옥수수시세가 115불수준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기는 하나 3월18일 발표된 미농무성의 금년도 식부예상면적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미산 옥수수의 약세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과잉으로 인해 워낙 가격하락이 심했던 옥수수의 경우 금년도 예상 식부면적은 7,806만에이커로 지난해의 8,335에이커에 비해 6.3%감소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곡물거래업자들이 예상했던 7,500에이커에비하면 다소 높은 수치이다. 아무튼 이와같은 미산 옥수수의 약세 기조는 앞으로 아르헨티나산옥수수와 중공산옥수수와 가격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국인 우리나라에는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 아르헨티나산 옥수수의 부상

최근 우리나라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오퍼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산 옥수수의 금년도 총생산량은 대략 1,30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풍작을 배경으로 충분한 수출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수확종료시점에 와있는 아르헨티나산 옥수수는 미산옥수수보다 수분함량이 적고, 가격면에서도 값싸

기때문에 일본측 종합상사들과 적극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종합상사들이 아르헨티나산 옥수수를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수분함량뿐만 아니라, 육계 및 계란착색에 영향을 주는 황색이 선명하기때문에 양계용사료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종합상사들에 의해 계약된 4~7월 선적기준 아르헨티나산 옥수수는 총 100만톤내외로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 9월선적까지 50만톤가량이 추가계약될 전망이다. 이와같은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구매계약량은 지난해의 50만톤에비하면 두배이상 증가된 수치이다. 일본에서 계약된 아르헨티나산 옥수수가격은 4월선적은 FOB 84.5~83.5달러, 5월선적은 86~84.5달러, 6~7월선적은 87~86달러, 또한 수수는 4~6월선적이 78.5~77달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아르헨티나산 곡물의 계약성립이 본격화되면서 일본행 곡물수송거래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곡물거래에서는 3월선적 3만톤급 선박이 20달러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주요곡물선적항인 River Plate 및 Bahia Blanca 선적 파나막스형선박의 투입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파나막스형은 최근 18달러~18달러25센트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향후 거래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다소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작년의 경우 이지역 곡물운임은 5월선적이 24달러수준이었으나 금년에는 운임시황이 대폭 하락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서 성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 남아공 한발피해 극심

한편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옥수수생산량은 최근 거듭된 한발(Hot Dry)로 인해 얼마전까지만 해도 현지생산자협회에서 금년도 생산예상량이 105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에는 810만톤으로 크게

하향 발표되고 있다. 현재 생산 예상되고 있는 남아프리카 옥수수 생산량 810만톤 중 백색 옥수수는 359만톤, 황색 옥수수는 460만톤으로 지난해의 739만톤 중 백색 옥수수 331만톤, 황색 옥수수 408만톤에 비하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해 국내 소비 물량은 약 600만톤으로 지난해의 기말재고 150만톤을 감안하면 금년에도 300만톤 가량의 옥수수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산 옥수수는 전분 함량이 높아 가공용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 기타 곡물도 치열한 각축

옥수수 시장이 미국 일변도에서 변화하여 태국, 중공, 아르헨티나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타 곡물들도 다품목, 다국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기타 곡물 중 가장 각광을 받던 중공산 수수는 거듭된 구매 증가로 인해 이제는 물량 부족 상태를 보여 아르헨티나산 수수 등에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특히 사료용 소맥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점차 메리트를 잃어가고 있다.

사료용 소맥은 한때 110~120불대까지 올랐으나, 최근 거듭된 가격 하락으로 인해 103~105불선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와같은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EEC산 소맥 가격으로 호주, 캐나다, 와함께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현재 호주, EC, 캐나다의 사료용 소맥의 수출 여력은 불투명한 상태로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기타 곡물 중 가장 높은 가격 경쟁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타 곡물 중 호밀은 EEC산, 캐나다산이 C&F 톤당 95불선에서 경합되고 있고, 소맥피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쓰리랑카, 칠레 등이 90~95불선에서 경합을 이루고 있다.

반면 타피오카는 현재 하드펠렛 가격이 C&F 톤

당 82불수준으로 지속적인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주지하고 있는 데로 태국산 타피오카의 수출재고 물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Non-EEC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철폐 등이 논의된 바 있고 이와같은 일들로 인해 지속적인 강세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 식물성 박류도 마찬가지로

곡류 및 강피류와 마찬가지로 식물성 박류 역시 대두박 시세의 급등으로 인해 채종박, 해바라기박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수입선 역시 아르헨티나, 칠레,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등지로 확대되고 있다.

대두박 시세의 강세 현상은 지난해 중순부터 시작되어 최근에는 C&F 가격 기준으로 톤당 225불선까지 치솟아 대두 시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대두박 시세의 급등은 세계적으로 기름 수요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식물성 박류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서독의 농업 전문 Oil World지의 분석에 따르면 금년도 세계 대두박 수요는 6237만톤 수준으로 지난해의 5,964만톤에 비해 4.6% 증가하였으며, 특히 소련과 브라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련의 대두박 수요는 221만톤으로 지난해의 126만톤에 비해 75% 증가하였고, 브라질도 200만톤으로 지난해의 189만톤에 비해 5.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름 수요는 정세 현상으로 인해 금년 1월 1일 현재 미국의 대두유 재고량은 11억 3,200만 파운드인 반면 지난해의 8억 8,400만 파운드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름 수요의 감소와 함께 식물성 기름 및 팜유, 코코넛유 등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산 팜유는 파운드당 12~13센트 수준으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16~17센트 거래되는 대두유

시장을 크게 잠식해 나가고 있다. 더우기 이와 같은 대두유에 대한 대체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대두유 재고누증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같은 대두유와 대두박의 수급불균형으로인해 대두유의 재고는 누증되고 있는데 반해, 대두박은 공급부족현상을 보여 기타식물성박류에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가격또한 강세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해 110~130불선에서 시세가 이루어지던 캐나다산 채종박(Canola) 시세가 최근 급등하여 C&F 가격으로 톤당 170불선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 수입국내에는 유리하게 전개

최근의 사료원료시장은 배합사료원료시세상승으로인해 원가인상압박을 받아오는 국내 사료업체에게 다소 호전되고 있는 느낌이다. 아직도 타피오카 루핀시드, 대두박등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곡류시세들은 다시 안정을

되찾고 있다.

이와같은 가격안정은 원료다양화와 시장다변화가 가져온 결실로 상호대체가 원만히 이루어질때만이 가능해진다. 세계 곡물메이저의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는 일본의 종합상사들도 사료용소맥이 크게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줄은 알면서도, 제3국거래만을 실행할 뿐 직접 자국에서 수입 사용하지 않는 것은 소맥이 일본 식량청의 관수용품목으로 규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이 값싼 중공산 옥수수를 쉽게 구매하지 못하는 것도 정치적인 문제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값이 싸다해서 태국산 옥수수만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역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료곡물다양화시책에 따른 옥수수 사용한다 때문이기도하다.

따라서 앞으로 효율적인 사료원료구매는 업계만의 노력이 아닌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특히 시세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정부의 시책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1. 1986년 주요 곡물별 식부 예상

(단위 : 천에이커)

구 분	1986년 식부 예상면적(A)	1985년 식부 면적(B)	A / B
옥 수 수	78.066	83.348	93.7
대 두	62.045	63.130	98.7
소 맥	71.101	75.575	94.1
수 수	15.853	18.285	86.7
귀 리	14.435	13.270	108.8
보 리	12.859	13.106	98.1

*USDA, 3월18일 발표.

2. 주요 원료 시세 동향

단위 : US \$/Ton

구 분	원 산 지	C&F 가격	구 분	원 산 지	C&F 가격
곡 류 - 옥 수 수	미 국	115	- 채 종 박	브 라 질	220
	태 국	111		아 르헨티나	220
	중 공	109		카 나 다	170
	아르헨티나	108		인 도	125
				중 공	110

구 분	원 산 지	C & F 가격	구 분	원 산 지	C & F 가격
-수 수	미 국	103		칠 레	135
	중 공	101	-해바라기박	아르헨티나	103
	아르헨티나	101		중 공	103
	호 주	110	강 피 류		
-소 맥	E C	106	-소 맥 피	인도네시아	95
	호 주	103		쓰리랑카	95
	카 나 다	104		아르헨티나	93
-대 맥	카 나 다	110		칠 레	93
	호 주	105	-G. S. P	카 나 다	82
-호 밀	카 나 다	95	-타 피 오 카	태 국	82
	E E C	95			
-루핀시드	호 주	150			
식물성박류					
-대 두 박	미 국	225			
	중 공	180			

* 3월말 현재 근월도 선적 기준임.

◇ 회원의 투고 환영 ◇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전국의 낙농 및 육우농가 여러분의 협회입니다. 따라서 본 월간 낙농육우 회보는 여러분의 회보지입니다.

경영생활 속에서 새로운 소식이나 알리고 싶은 일, 혹은 뼈저린 체험담이나 성공사례 등을 간직하신 분은 협회로 원고를 보내주시시오. 본지에 게재하여 널리 알리겠습니다.

낙농육우농가가 합치면 협회가 되어 큰 힘이 되고 흩어지면 하나 하나로 되어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본회의 발전은 곧 전국 낙농육우 농가 여러분의 발전이요 권익보호의 길입니다.

● 보내실곳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234

축산회관 3층

한국낙농육우협회 홍보실